“내딛는 순례단 걸음이 불교 미래 여는 초석”

2020년부터 상월결사 순례 참여
어려웠지만 대중과 함께해 완주
1167km 인도순례에도 ‘자신감’
틈틈이 다리 근력 키우기 훈련
“인도순례는 불교 중흥 시작점”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년 전 태화산 예비순례를 마치고 자자회 때 언젠가 현실이 될 인도순례 회향식에 함께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 보다는 설레는 마음입니다. 구랍 18일 인도순례단 오리엔테이션에서 박기련 지원단장이 언급했지만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순례문화를 창달한다는 자부심이 우리 순례단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2월 9일 시작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참여하는 소회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2019년 정년퇴임 후 교단을 내려온 정충래 이사는 은퇴 후 별다른 계획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가 인연이 닿은 것이 상월결사이다. 그는 천막결사 때부터 상월결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

“아홉 스님이 ‘침몰하는 우리 불교를 되살려야 한다’ 는 절박한 불교중흥의 발원에 재가불자로서 십분 공감했습니다. 그때 야간호법을 책임지는 역할로부터 시작해 공주 예비순례 때부터 국내 순례를 이어오며 재가 참가자를 대표하는 역할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연은 2020년 자비순례, 2021년 천리순례로 이어졌다. 자비순례가 500km, 천리순례가 423km의 거리. 모두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자비순례 초반에는 매일 장거리를 걷는다는 부담과 풍찬노숙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힘들었고, 천리순례는 날씨로 인해 애를 먹었다. 그래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대중이 함께해서”라는 게 그의 대답이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정과 여건이었습니다만 참가 사부대중 모두가 한마음이 되니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죠. 끝날 때까지 발에 생기는 물집의 아픔도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극제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순례단원끼리 서로서로 다독여 주면서 힘을 내기도 하고, 순례단을 응원하며 눈물까지 흘리시던 많은 신도들의 간절함을 이심전심으로 알 수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완보할 수 있었습니다.”

43일간 이뤄지는 인도순례는 총 거리가 1167km로 앞선 두 번의 순례를 합친 것보다도 길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정충래 이사는 우바새를 대표해 7조 조장을 맡았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이에 정충래 이사는 “틈틈이,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도리어 순례지원단의 노고에 비하면 걷기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걷는 거리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내서 나름 훈련하면서 다리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사부대중이 함께 움직이며 불교중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잊지 않으면 완보하리라 확신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극복의지가 생겨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보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보다 더 고생하는 분들이 순례지원단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지원단의 노고와 희생이 없으면 순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안전 확보부터 궂은 뒷바라지까지 그분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 부끄럽지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충래 이사의 걷기 사랑은 유명하다. 이는 상월결사 순례를 통해 얻어진 변화다. 그는 걷기 전날 밤 다음날 입을 옷을 챙겨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병을 갖고 집을 나선다. 일단 집을 나서면 3~4시간에 걸쳐 약 15km를 걷는다. 주로 걷는 곳은 한강변과 올림픽공원이다. 일주일 단위로 체크해 40km 이상은 걷는다는 목표도 있다. 그가 걷는 것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은 예전에 볼 수 없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다.

“걷기를 하며 느낀 것은 생각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며 다닐 때는 볼 수 없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길가에 핀 꽃부터 나무, 풀, 돌맹이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산하대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자비심도 생겨납니다. 걷고 나면 일단 그 날, 그 주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했다는 마음이 또 걷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요.”

상월결사 순례는 정충래 이사를 불교 현장으로 이끌었다. 그는 현재 중앙신도회 임원으로서 포교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상월결사 순례 이후 중앙신도회 임원으로서 우리 종단의 포교활동 면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미산원정대 등 신행활동에도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직의 불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충래 이사는 상월결사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순례인 자비순례, 천리순례, 인도순례를 한국불교 변화의 이정표로 보고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불교, 그래서 우리 중생에게 찾아오는 불교, 현실 생활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신도들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상월결사 순례 시리즈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인도순례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 유적지를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나부터 변화해야 하듯이, 우리 불교를 바꾸기 위해 그 변화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의식이라 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을 강조하셨던 전법의 수레바퀴를 지금 우리 현실 상황에 맞게 다시 힘차게 굴려야 한다는 의지를 부처님께 약속하러 가는 것입니다.”

정충래 이사는 3년 전 자비순례 처음 출발할 당시 삼독심 중 진(嗔)을 내려놓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아무리 어렵고 불편해도 화내지말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이번에는 삼독심 중 탐(貪)을 내려놓을 것을 발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더하는 것에 밤잠을 잊어가며 노력하고 시간을 써왔지만, 이제는 덜어내는 삶을 가질 나이가 되어서다.

“걸으며 늘 생각하고 서원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큰 발원은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불교중흥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것입니다. 인도순례가 끝난다고 내 과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중흥의 시작점에 서기 위해 가지는 일련의 과정이라 봅니다. 인도순례는 개인을 위해 걷는 행사가 아닙니다. 삼천리 거리를 내딛는 발걸음마다 우리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걷겠습니다.”

인도 순례 준비 하는 사람들

정충래 동국대 이사

정충래 이사는…대전 출생으로 충남고와 동국대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영석고가 동국대 사범대 부속고로 편입된 후 내부공모를 통해 뽑힌 첫 교장으로 영석고가 지역 명문으로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사)날마다좋은날 이사로 활동 중이다.

